

김진영 <꿈꾸는 우울: 벤야민을 이해하기 위해>

1장 벤야민의 생애와 사유의 특징

■1교시: 학문을 대하는 벤야민식 지적태도와 그 특성

▲ 강의소개 및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독어명

오늘은 뭐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면서’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벤야민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벤야민 사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조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를 좀 중심으로 벤야민의 역사 개념, 혹은 벤야민의 소위 그런... 근대에 대한 비판 뭐 이런 문제들을 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터 벤야민은 독일 철학자로는, 요즘 뭐 전부 불란서 철학자가 다 관심의 그런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발터 벤야민만이 독일 그 철학에서 예 그 관심을 끌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뭐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얼마 전에 벤야민의 선집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는 뭐 이 책이 유일했었죠. 그죠?

이 책이 유일하게 이제 번역된 책이었었는데, 근자에 와서 소위 그런 그 파사젠베르크라고 하는, 영어로는 아케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독일 원어로 그 기억을 해두십시오. 왜냐하면 아케이드라는 것과 또 파사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베르크라고 해서... passagen-werk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사유를 좀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 뉘앙스에 가까운 차이들이 드러내는데, 그 차이가 사실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쉽게 옮길 때 바로 그 뉘앙스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원서들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옮길 수 없는, 그리고 단어 속에 예 우리가 다른 말로 옮기면 훼손되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번역하지 않고 그것을 전문용어라는 이름으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파사젠베르크라고 해서 쓰고 그러는데, 영어권에서는 이제 아케이드프로젝트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차이가 꽤 있습니다. 벤야민 그 전공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현재의 선집을 발간을 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텍스트와 컨텍스트와의 이해

그러나 뭐 거의 모든 그런 그 철학이나 아니면 좀 심층적인, 심층적인 그런 그 이해를 요구하는 텍스트들이 다 그렇듯이, 사전지식 또는 어떤 백그라운드 없으면, 사실 텍스트와 직접적으로 만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일단 읽고자 하

는 텍스트가 그렇게 그 친절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이건 어디서 나왔고, 저건 어디서 나왔고, 그리고 이런 이러저러한 정신사적 배경 하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글 쓰다가는 뭐 끝이 없을 테니 전제를 하고 글을 쓰게 되겠지요.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얘기되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독자를 굉장히 평가절상하거나 아니면 존중하거나, ‘그 정도의 지식이야 있겠지’ 라는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유라고 하는 것이 뭐 갑자기 어느 날 혼자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유들과의 (종게 얘기하면 관계고 나쁘게 얘기하면) 투쟁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생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텍스트가 함께 들어가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일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텍스트의 어떤 특수성이나 아니면 고유성 같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벤야민의 뭐 입문과정인데요, 이 입문과정의 목적은, 가능한 한 깊이 들어가 보겠지만 그러나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벤야민의 어떤 그런 사유의 궤적을 한번 이렇게 통과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과사주를 한번 해보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벤야민의 텍스트를 접근할 때 그런 지적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는, 혹은 제가 배경을 좀 마련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 벤야민의 생애로부터 기인하는 개념들

오늘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벤야민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강의에도 오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벤야민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이나 모든 사유는 벤야민의 어떤 개인사적인 그런 측면과 땔 수 없는 관계를 지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을 통해 그 또... 그 사람의 사유라고 하는 것을 또 재단해내려고 하면 지나치게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독해가 되겠습니까마는, 사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한 데로부터 이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게 얘기하면 초월한다고 얘기 하는 건데, 바로 그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건너 뛴 건지, 아마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벤야민 얘기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거 같네요. 먼저 좀 잠깐 여쭙고 싶은 것은 강의를 들으러 이렇게 오셨는데..., 벤야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들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공자가 계십니까? 논문을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그 벤야민을 언급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 영화 공부하는데.) 영화요? 예. (영화이론 중에서 벤야민이 많이 언급 되는데, 저는 잘 몰라서.....) 아... 영화하시는데, 특별히 벤야민에 대해 어떤 점에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화미학 강의를 듣는데 벤야민을 많이 언급을 하시더

라구요.)

예를 들면 『기술 복제시대 예술작품』 같은 거 얘기, 그쪽으로 많이 언급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선 워낙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대충 뭐 알지 않나요? 근데 뭐... 저도 (저는 잘 몰라서.) 하하하. 그렇습니까? 그 매체론이라는 이름으로 그 텍스트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얘길 하겠습니다. ‘벤야민’이라 하면 그 안에 아우라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우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차피 그걸 건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공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딱 그것만 떼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야민한테서 아우라는 그의 전 작품 전 그런 사유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지요(다시 얘기하면 variation, 그러니까 어디서든 또 다르게 사용되는).

▲ 벤야민 사유의 특성과 매력: 비의성(다양한 시니피앙)

『기술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얘기되고 있는 아우라는 그 컨텍스트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아우라인데, 우리는 너무 ‘그 아우라’만 딱 떼어서 얘기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단어는 전문용어인데(사실 희랍어죠), 벤야민의 텍스트를 읽다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변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벤야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우라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벤야민 사유는 우리가 언어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비의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벤야민 사유의 특징은 중요 개념의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주변개념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중심개념)들을 (기호론적으로)시니피에라고 얘길 하면, 이것(주변개념)들은 시니피앙들이죠. 이 시니피앙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전부 중심개념을 지시하는 벤야민의 ‘비의성’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성은 벤야민 사유의 특성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매혹시키는 또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비의성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라는 질문을 자꾸만 들게 만드는 애매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논의도 있습니다. 벤야민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비의적인 컨텍스트에 대한 애매함입니다.

바로 아우라도 이 시니피앙 중(무수한 주변 개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우라, 미메시스, 독일어로 에어파룽(erfahrung) 즉, 익스피리언스(experience) 경험 등……. 나중에 가게 되면 소위 메시아적인 개념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미지라고 하는, 참 그 이미지가 독일말로는 빌트(bild)인데, 이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미지와 벤야민이 말하는 변증법적 이미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독일어로 빌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불란서에서 넘어온 이마주 혹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엄밀히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한 가지의 개념이 여러개로 분화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주변의 개념들이 앞서 말한 그런 영

역입니다.

▲ 벤야민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

아마 이 부분이 벤야민이 그 교수논문자격으로 썼다가 퇴짜를 맞은 「바로크 독일 애도극의 기원」 제목의 그 ‘기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The Origin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길로 돌아서 결국 그 근원에 이르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뭐 8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벤야민 특유의 개념들을 이제 만나게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그것들이 바로 어찌면 우리가 단순히 ‘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중심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감을 잡으시게 되면, 아 벤야민이 저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돌아다니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벤야민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뭐 그 대체로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벤야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벤야민의 지적태도: 자살태도로서의 미메시스

발터 벤야민은 189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0이 못 되어서 40대 중반, 독일식 나이로 따지면 40대 중반 겨우 넘어서 이제 자살을 했죠. 스페인 국경에서 말 한 마리를 죽이기에 충분한 그런 모르핀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단순히 벤야민의 마지막 불행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벤야민은 실제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몇 번 실패하다가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벤야민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바로 그런 말(자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벤야민의 지적태도가 자살의 태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예컨대 벤야민은 결코 그 메모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케이드 프로젝트 혹은 파사젠 베르크... 그 안으로 투신한 겁니다. 즉,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수집한 게 아니라. 나중에 수집, 수집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 잠깐 얘기되겠지만, 본인이 그것을 자료로... 수집을 했다가보다는 그 자료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 것이었죠.

바로 그의 지적 태도는 이렇듯 자살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미메시스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어떤 대상을 나의 용도에 의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대상화하는 태도가 아니라 거꾸로 되는 상태를 이룹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대상화되는 그런

태도인데, 그런 지적 태도가 벤야민의 사유 체계 속에 깊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자살태도입니다. 자살태도. 그래서 좀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주체라고 하는……. 주체성을 지배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메시스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르노가 일찍이 얘기했듯이, 벤야민에게 위대함이 있다면 그 위대함을, 자기를 역사의 운동장으로 제공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벤야민은 자기를 평생 동안 뭐 문예비평, 문예이론가로 (현재는 예컨대 독일의 노베르트 볼츠 같은 사람들이 매체이론가로서의 어떤 그런 벤야민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했습니다. 벤야민은 평생 자기를 문예비평가, 역사학자로서 생각한 것이지요. 물론 유물론적 역사학, 사적 유물론자인데, 바로 이 역사학자가 역사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벤야민은 (아도르노가 말했듯) 벤야민이 스스로가 자기를 역사의 운동장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즉 자기를 켜버린 것입니다. 역사학자로서의 벤야민은 역사를 다룬 사람이 아니라 역사에게 자기를 켜버린 사람입니다.

◆2교시: 벤야민의 생애와 사유

▲ 벤야민의 알레고리: 두 개의 층위

벤야민을 일종의 자기를 버린다는 그러한 태도로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끊임없이 벤야민의 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일종의 태도, 지적 태도가 있는데,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 텍스트 속에 내재한 것이지 그것이 주제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벤야민이 말하는 텍스트의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층위가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층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읽을 수 없는 층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비하게 뭐 얘기되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글을 써보거나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 해보면, 내가 생산해 내는 것이 있고(내가 생산해 내는 그것이 텍스트면 글이겠고), 미술이면 작품이겠지만, 그 안에 그것이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전제가 되고 있는 것.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그 태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글을 쓰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읽어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그 기호층위, 아니면 표층 층위, 텍스트 층위에서, 아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그 안에서 읽어내는 그러한 그 독서 방법도 있습니다.

벤야민은 독서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쓰여 지지 않은 것을 읽는 게 독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쓰여 진 걸 읽는 게 아니라 쓰여 지지 않는 것을 읽기. 그 말 속에는 벤야민이 소위 역사를 바라보든,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메트로폴리스에 대해서 얘길 하겠지만 대도시를 바라보든, 아니면 예술 작품을 바라보든 그것을 바로 그게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에는, 모든 대상에는, 그리고 사실 19세기 파리의 그런 건물이든 아니면 본인이 살고 있었던 20세기 파리의 건물이든, 아니면 상품이든, 아니면 길거리에 서있는 창녀이든, 아니면 샌드위치맨이든, 아니면 자기가 읽고 있는…… 전승되어 오는 무슨 텍스트이든, 모든 텍스트는 벤야민에게 일종의 알레고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알레고리는 바로 이 두 개의 층위가 존재하고 있는 전제를 갖고 있는 그런 형상을 의미합니다.

▲ 성경에서의 알레고리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물론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예컨대 우리가 성경 같은 걸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얘길 하지 않

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돌을 맞을 때,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 뭐 그런 말.

아니면 우화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화를 읽는 방식이 알레고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이 얘기되고 있는 내용하고 그것이 그 내용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읽고 이런 식으로 얘길 할 수 있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사마리아 사람이 막 가다가 보니까 어떤 강도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근데 뭐 발이새인들은 가다가 그냥 지나치는데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걸 못 보고 데려와서 치료도 해주고 뭐 이랬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가 말하기를 “누가 착한 사람이나?”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나 “사마리아인이 착합니다.” 이렇게 얘길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엘 가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봐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길 하지만 사실 그 독법은 어떻게 보면 틀렸습니다.

성경 독법으로 얘길 하면 그렇게 간단하질 않거든요. 그게 바로 알레고리적인 겁니다. 우리 내용으로만 보고 아, 그렇구나, 교훈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기독교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천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지상이라는 것은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한 다리를 놓은 사람이 누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예수의 존재인데, 바로 특별한 다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거기서 얘기되고 있는 것하고, 그냥 거기서 의미되고 있는 것은 마치 신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 사이에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벤야민에게 있어, ‘쓰여 지지 않은 것을 읽기’ 라고 하는 그 말자체가 그런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벤야민의 사유를 아주 특징짓는 단적인 예이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중심을 비워놓고 돌아다니는 단어 중에는 알레고리도 있는 것입니다. 알레고리.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벤야민 사유의 특성을 끊임없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 하게 될 것입니다.

▲ 벤야민의 베를린 유년시절과 유대인 가족생활

어쨌든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벤야민은 1892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기 이전에 삶들이 굉장히 벤야민의 지적 여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벤야민은 굉장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유대인 부호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베를린의 유년시절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벤야민의 행

복했던 유년들의 기록이 쪽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행복했던 유년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행복했기 때문에 꿀 수 있었던 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행복한, 그러니까 그 소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인데, 그런 부르주아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 아니면 요람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꿀 수 있었던 꿈들, 그 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들이 나중에 다시 얘길 하겠습니까마는, 거기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그 꿈들이 행복했다, 아니면 그 꿈들이 사라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9세기 베를린의 유년시절에서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벤야민의 독특한 시간관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대 그 베를린은 그 유럽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그 베를린은(아... 동부와 서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동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서부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벤야민은 서부 지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19세기의 벤야민의 베를린 유년시절을 보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거지와 창녀 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벤야민은 유년시절 내내, 내내 그 서부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계속 갇혀 지내고 그 동부로 이제 건너간 적이 없는 이제 그러한 유년시절을 보냈죠.

당대 유대인들은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전통을 지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세속화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속화된 유대인들은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종교를 버리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규율이나 종교적인 어떤 이념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세속화된 유년,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세속화된 유대인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죠. 소위 성공한, 성공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세속화에 실패한 그런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벤야민의 아버지는 성공한 세속화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벤야민은 태어났습니다.

벤야민에게 베를린은 나중에 도시철학적으로 성년이 되어 제2의 고향으로 삼았던 파리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면 벤야민은 청년기로 들어갑니다.

유대인 가정은 아주 그 철저하게 계약적인 가부장제를 그대로 모방한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과 인간 사이에는 철저하게 위계가 딱 서 있고, 어떤 계약관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보답을 주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벌이 내려오는, 바로 그러한 수직관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계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순종해라, 순종해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바로 유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구조가 철저하게 그런 그 가부장제로 만들

어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철저하게 그런 그 가부장으로서 중심에 서있고,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아이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든 아니면 아이들이든 그 가부장제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어떤 계약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듯이 충분히 후원을 받지만, 계약을 어기게 되면 아주 단호하게 벌을 받는 가부장제적 특성을 세속화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식을 법률가 등 그런 부류의 상류층 사람들로 생산해내려 하였습니다. 벤야민은 법률이런 데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인문학적으로 건너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벤야민의 아버지는 경제적인 원조를 하지 않겠다 라고 선전포고 했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벤야민과 아버지 사이에 일종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독일 애도극의 기원』 집필 배경

벤야민의 아버지는 ‘네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부를해서 그냥 지식인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대신 네가 만약 대학교수가 된다면, 경제적인 원조를 충분히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야민은 박사 논문을 쓰게 됩니다. 낭만주의 미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독일에서는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만 해서는 안 되었고 교수 자격 논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의 학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써서 통과가 돼야지만 비로소 어느 대학에 교수직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작품이 바로 벤야민이 유일하게 한 권의, 유일하게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그런 텍스트입니다.

독일 비극, 애도극이라고 애길 하는 『독일 애도극의 기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독일어로 애길 하자면 트라우어 슈필 Trauer spiel이라고 애길 합니다. 트라우어 슈필 혹은 애도극이라고, 혹은 비애극이라고 번역들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애도극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애길 하면 모닝 플레이mourning play다, 독일어, 그 영어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애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트래지디tragedy, 비극이라고 애길 하는 것, 그리스 비극, 이것과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비극이라고 하게 되면 그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유럽 그 문학사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연극 형식이 있지요. 그것을 비극이라고 우리가 애길 하게 되면, 벤야민은 바로 그 비극과 구분해서 또 하나의 그런 슬픔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극의 형식을 바로 17세기의 독일 바로크에서 발견 했고, 그리고 그것을 트라우어 슈필이다, 애도극이다, 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물론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독일 문학사에서 특별하게 있었던 아주 짧은 시기이고 그리고 벤야민 이전 시대인, 17세기 바로크 애도극을 하나의 이론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요. 알레고리와 멜랑콜리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커다란 개념을 갖고 재해석하기 이전까지는 독일 문학사, 아카데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문학사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향이었죠.

다시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거의 가치평가를 받지 못했던 하나의 그런 짧은 시기에 나왔던

그런 연극 텍스트들인데. 바로 이 텍스트들을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고리라는 개념과 그 멜랑콜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벤야민은 이 『독일 애도극의 기원』이라고 하는 교수 자격 논문을 써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게 퇴짜를 맞았죠. 그 논문이 퇴짜를 맞은 이유를 보게 되면, 지도교수가 나는 도대체 이 텍스트 중에서 단 한 줄도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백이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야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소위 논문 형식을 떠나서 기존에 있었던 논문 형식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애도극의 기원」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앞부분이 서문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일 난해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파사주 거기 들어가 보면 인식론적 부분이 있습니다. 벤야민이 자기가 사유하고, 대상을 접근해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도 이미 이 텍스트가 소위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겪게 될 어떠한 스캔들에 대해서 이미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 혹은 이 텍스트 속에 들어가 있는 사유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의 지도교수는 ‘난 단 한마디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고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3교시: 벤야민의 생애와 지적 태도

▲ 벤야민의 가난한 삶과 글쓰기 형식

후일담으로 애길 하게 되면, 사실 독일 그 아카데미...내에서는 일종의 굉장히 그 스캔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왜냐면 사실 그 이후 그... 독일 비극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란서 쪽에서 벤야민이 수용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벤야민은 독일로 역수입됐거든요. 역수입돼서 또 벤야민 붐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런 점에서 자체 내에서 생산된 어떤 작품을 자체 내에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 가라고 하는 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과연 학문의 자유, 아카데미의 보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한 기회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벤야민의 이 논문이 통과가 됐더라면 아마 아버지로부터 계속 후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실패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후 벤야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벤야민을 우리가 사유함에 있어서 가난을 빼고 그의 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됩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는데. 에 저는 뭐 아도르노와 벤야민을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참 재밌는 경우를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부자 유대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길이 너무 달랐어요. 아도르노는 한마디로 잘 나갔죠. 그래서 대학에 일찍 자리 잡고 하고 싶은 애길 다하고 살았지요. 살면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습시다.

▲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삶 비교

그러나 벤야민은 아도르노에게 많은 그런 사유의 단초를 준 스승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가난에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도르노하고 벤야민을 한번 비교해보면, 아도르노는 굵직굵직한 책을, 그의 전집은 전부 굵직굵직하게 시작해서 끝이 난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단상들도 나중에 몇 권 있지만. 그러나 부정변증법이다 아니면 뭐 미학이론은 뭐 나중에 책을 스스로 내지 못했지만, 그것도 완성된 책이지요.

『계몽의 변증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굵직굵직한 책들을 그는 집필했습니다. 집필을 하여 그 결과물로 책으로 세상에 나와 있다면, 벤야민의 글들은 유일하게 『독일 비극의 기원』을 빼면 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책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길게는 한 50페이지 정도..... 『기술 복제시대의 예술작품』도 한 50여 페이지 되는 정도입니다. 좀 길면 50페이지, 한 70페이지 되고, 피테 같은 경우가 제일, 피테의 그런 친화력 연구 같은 것이 제일 긴 것에 속하는데, 뭐 그런 긴 논문들 몇 개 빼면 전부 뭐 10페이지 이내, 아니면 7, 8페이지 이내 쪼가리 글들로 전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벤야민의 글 쓰는 작업이 그 아주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먹고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잡문들을 쓰지 않으면 이제 그야말로 그대로 빌리면, 그토록 좋아하는 그런 사유의 장소인 카페에서 커피마실 수 있는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끊임없이 이 잡문들을 쓰고 그래서 그 잡문들이 전부 이제 모여 있는 게 소위 벤야민 전집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좀 그 읽어보려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따로 그 알파벳순으로 제목만 짝 있는 책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미리 들춰보아야지 몇 권 몇 페이지에 있구나, 그거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찾으려면 그... 열 몇 권에 달하는 그런 그 책을 다 뒤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벤야민이 단문과 fragment를 썼던 이유와 그 의의

바로 그런 것들이 얘기해주는 것처럼 바로 아도르노가 책이라는 걸 썼다면 벤야민은 말하자면 잡문을 썼는데, 혹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fragment 들만 썼습니다. 단편들. 잘라졌다는 의미에서 단편들. 단편들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글쓰기 형식, 짧은 글들, 단편적인 글들, 이것들이 이게 바로 벤야민의 사유의 힘이지만, 아까 제가 사유는 어디서 출발하지만 그걸 건너뛰다고 얘길 했는데, 거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형식화하죠, 벤야민이. 그걸 form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총체화되고 있는 게 소위 그런 그 파사쥬베르크예요. 짧은 글들 그냥 모아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벤야민의 텍스트를 이제 그 fragment적인, 벤야민 연구에서 fragment라는 하는 그런 개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fragment를 그 사람의 어떤 자서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fragment를 바로 벤야민 특유의 사유방식, 특유의 글쓰기방식, 특유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동시에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억압적 삶에서 얻어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글쓰기가 나중에는 바로 그런 억압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억압적 현실을 다루는 무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transformatio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벤야민에게 그 사유의 transformation이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점들을 잘 주목해서 벤야민의 글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렇게 짧은 글. 벤야민이 가지고 있는 짧은 글들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것처럼 바로 그 벤야민은 이후 끊임없이 짧은 글들을 쓰게 되는, 그러한 가난 속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벤야민이 뭐 여기저기서 항상 아도르노에게 편지 보낸 것을 보면, ‘아 이제는 뭐 어디다가 돈 좀 달라는, 그런 재단이나 이런 데 좀 돈 좀 달라고 편지 쓰는 일도 지쳤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유일하게 벤야민에게 돈을 줬던 기관이 바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주축으로 있는 소위 사회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호르크하이머도 유대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상속을 했는데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행히 방탕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소위 프랑크푸르트 술레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그 모체가 되는 연구소를 세우기 되죠. 그 연구소에서 잡지 등 기관지를 발간하게 되는데, 그곳이 유일하게 벤야민이 원고료를 타는 그러한 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벤야민이 남긴 편지들을 보게 되면 참 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끊임없이 벤야민에게 한편으로는 벤야민을 알아봐서 벤야민의 어떤 특수성이나 벤야민의 그런 중요성을 알아본 유일한 당대의 사람이었고, 벤야민의 사유를 끊임없이 관심 갖고 또 알리고 그리고 독일에서 처음으로 그 벤야민의 사유에 대해 논의의 대상으로 삼게끔 한 사람도 사실 테오도르 아도르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는 벤야민에게 그 원고를 수정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 생각은 틀렸다. 아니면 이 생각은 고쳐야 되겠다. 안 고치면 못 신는다.’ 이런 식의 요구를, 물론 지적인 요구이긴 하지만요.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만 쓰여진 게, 아니라 고친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썼던 것이 거기로 갔다가 아도르노에게 야단을 먹고 다시 쓴 이제 그런 두 개의 글을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들레르 연구 같은 데 대해서 굉장한 수정을 요구 하는 등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벤야민은 끊임없이 이 경제적인 억압 때문에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그런 삶을 쪽 살아왔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세기 베를린의 유년시절을 보게 되면, 여기도 나오나요? 여기도 번역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보면 「난쟁이뽑추」라고 하는 작은 글이 있습니다. 난쟁이뽑추라는 글. 난쟁이뽑추라고 하는 메타포가 벤야민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뽑추. 그래서 벤야민이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난쟁이뽑추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말년에 이르러서 돌아보게 되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난쟁이 뽑추화 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30평짜리 방이, 점점점점 25평으로 줄었다가, 20평으로 줄었다가, 10평으로 줄었다가, 그리고 아주 작은 방으로 변해버렸고, 그런 널찍하던 책상이 점점점점 작아져서, 방이 작아졌으니까 책상도 작아지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가만히 살아온 걸 보면,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계속 난쟁이 뽑추가 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길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난쟁이 뽑추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대단히 도덕적인, 지적인….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식, 모럴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르노 ‘재는 나보다 못한 앤데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꼴이 됐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점점점점 난쟁이뽑추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마도, 수많은 난쟁이 뽑추들이 계속 나를 바라보았던 것 같다.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들을 바라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나, 그 자신에

게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라고 끊임없이 얘기 했었는데, 나는 딴 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한 번도 응시해본 적이 없다. 바로 그 시선에 답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자신이 점점 꺾이게 되어갔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벤야민이라고 하는 한 지식인에게 끊임없이 나 좀 봐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라고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난쟁이뺨뺨들이 누굽니까? 벤야민식으로 얘기하면 프롤레타리아들이지요. 자기는 그 시선을 한 번도 응시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가 스스로 난쟁이뺨뺨이 되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 지적인 그런 그 도덕의식으로 자신의 가난하고 불행했던, 그리고 재수 없었던, 그리고 스스로의 말을 빌리면 그 원손잡이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도덕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점들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특히 이 시대의 우리 지식인들의 역할 같은 것을 가만히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참 배울 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성찰해볼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 벤야민의 파리 망명생활과 파사젠베르크 그리고 죽음

그래서 벤야민은 그러한 식의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에 나중에 그 벤야민은 또 그 사이에 뭐 그 천식 등으로 많이 아팠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년에 그 시대적 상황이 바로 2차 대전, 1940년에 죽었으니까 2차 대전이 이제 점점 다가온 것이지요. 히틀러 파시즘이 독일을 지배하고…….벤야민에게 사유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역사철학 테제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1939년에 가게 되면 히틀러하고 그 다음 충격을 줘요. 세계사에 대해서.

에 러시아의 스탈린하고 둘이 하나의 불가침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벤야민에게 굉장한 그리고 그것이 벤야민이 역사철학 테제에 대한 글을 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벤야민이 바로 그 시기에 독일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파리로 건너왔고, 그리고 파리에서 지적 망명자로서 살면서 파사젠베르크라고 하는, 혹은 파사젠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끊임없이 파리 공립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도시 풍경 아니면 특히 군중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했고, 그렇게 메모한 걸 가지고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가 그것과 관련된 서적들을 뒤적이면서 그것들을 다시 메모하고 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때 아돌프노 같은 사람은 이미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지적 망명을 해서 벤야민에게 끊임없이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자 와라. 위험하다. 와라. 미국비자까지 마련을 해주고 그랬는데도, 벤야민은 나는 유럽의 마지막 지식인으로 남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파리에 끝까지 남게 되죠. 그러나 벤야민은 드디어 파리에서 유대인 체포령 같은 것들이 그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아돌프노가 얘기했던 바대로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또 몇 번 체포가 됐었어요. 체포됐다가 풀려나오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파리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혀 있었는데, 스페인 쪽으

로 건너가는 피레네 산맥 쪽은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몇 사람들과 같이 건너가게 되는데, 또 그게 뭐 재수가 없었는지 어쨌는지 좌우지간 벤야민이 도착한 바로 전날 그 봉쇄령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갇을 때 이제 더 이상 거기서 갈 수 없다, 탈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전언을 들었고, 그리고 이미 항상 얼마 전부터 자살할 생각을 갖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모르핀을 먹고 자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940년이죠.

자, 벤야민의 이런 과정들을 전제로 이러한 벤야민의 자서전적인 베이스 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나중에라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